

광주FC, 올 시즌 첫 승 제물은 '수원FC'

2025시즌 K리그1 일정 발표...광주, 2월 15일 홈 개막전 2월 11일 산둥 타이산과 ACLE 원정경기...체력 관리 관건

광주FC가 수원FC를 상대로 첫승 사냥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5시즌 K리그1 정규라운드 33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HD를 필두로 K리그1 데뷔를 앞둔 '승격팀' FC 안양까지 총 12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시즌은 2월 15일 막이 오른다.

오후 1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스틸러스와 대전하나시티즌이 공식 개막전을 갖는다.

지난해 코리아컵 우승을 차지한 포항은 신광훈, 김중우, 김인성 등 베테랑과 재계약을 하면서 경험과 안정감으로 순위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은 '득점왕' 주민규와 함께 정재희, 임종은을 영입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이어 오후 3시 30분 제주SK FC와 FC서울의 경기가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제주SK FC'로 새로 출발한 올 시즌, '김학범호' 2년 차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역시 서울에서 두 번째 시즌을 여는 김기동 감독은 김진수, 문선민, 정승원, 이한도를 영입하는 등

검증된 자원으로 질주를 노린다.

광주FC는 오후 4시 30분 수원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2025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정호 감독의 로테이션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는 K리그 개막에 앞서 11일 산둥 타이산과의 ACLE 원정경기를 갖고 16강 확정을 노린다.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질 지략 대결도 관심사다. 부임 첫해 수원FC를 K리그1 5위로 이끈 김은중 감독이 이정호 감독과 시즌 첫승을 놓고 지략 대결을 벌이게 된다.

16일 오후 2시에는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최강자' 울산과 '도전자' 안양의 흥미로운 맞대결이 예고됐다.

리그 3연패를 이룬 울산은 올 시즌에도 우승후보 1순위다. 창단 이래 첫 K리그1 무대에 오르는 안양은 막내의 패기로 승리를 노린다.

이날 오후 4시 30분에는 전북현대와 김천상무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는다.

지난 시즌 강등권에서 자존심을 구긴 전북은 새

롭게 부임한 거스 포엣 감독을 앞세워 새 시즌 반등을 노리고 있다. 김천은 지난 시즌 승격팀 돌풍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같은 시각 DGB대구은행파크에서는 대구FC와 강원FC의 경기가 펼쳐진다.

지난 시즌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한 대구는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질주를 하며 높은 곳에서 순위 싸움을 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창단 첫 준우승을 이룬 강원은 '정경호호' 체제로 다시 한번 우승 경쟁을 벌이게 된다.

올 시즌에도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계속된다.

각 팀당 1회씩 총 12번의 금요일 야간 경기가 열린다. 시즌 첫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5월 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과 광주의 대결로 전개된다. 이날 포항과 김천의 경기가 열리는 포항스틸야드 경기장에도 조명탑이 켜진다.

광주는 6월 13일에는 서울을 상대로 홈에서 '금요일 밤 축구'를 선보인다.

한편 K리그1 12개 팀은 정규라운드 33라운드 일정을 마친 뒤 파이널라운드에 돌입한다.

1-6위는 파이널A, 7-12위는 파이널B에서 팀별로 5경기씩 치르게 된다. 파이널라운드 34-38라운드 일정은 정규라운드가 모두 끝난 뒤 확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5 GFC SCHEDULE		
2 FEBRUARY	5 MAY	7 JULY
1R 15 토 16:30 수원FC H	1R 2 금 19:30 울산 A	22R 18 금 19:30 수원FC A
2R 23 일 16:30 전북 A	12R 5 월 16:30 김천 H	23R 22 화 19:30 김천 H
3 MARCH	13R 11 일 19:00 전북 H	24R 26 토 19:00 전북 H
3R 1 토 16:30 안양 H	14R 18 일 16:30 포항 A	8 AUGUST
4R 9 일 16:30 포항 H	15R 25 일 16:30 강원 H	25R 10 일 19:00 포항 A
5R 16 일 16:30 김천 A	16R 28 수 19:30 울산 H	26R 17 일 19:00 대전 H
6R 29 토 16:30 대전 A	6 JUNE	27R 23 토 19:00 강원 H
4 APRIL	17R 1 일 19:00 대구 A	28R 30 토 19:00 제주 A
7R 6 일 16:30 제주 H	18R 13 금 19:30 서울 H	9 SEPTEMBER
8R 13 일 14:00 강원 A	19R 18 수 19:30 제주 A	29R 14 일 19:00 수원FC A
9R 20 일 14:00 서울 A	20R 22 일 19:00 대전 H	30R 21 일 19:00 서울 A
10R 26 토 16:30 대구 H	21R 28 토 19:00 안양 A	31R 28 일 16:30 안양 A
	10 OCTOBER	32R 4 토 14:00 대구 H
		33R 18 토 14:00 울산 A

HOME AWAY *파이널라운드는 정규리그 종료 후 공지됩니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광주FC 2025시즌 정규라운드 일정. <광주FC 제공>

광주FC, '특급 유망주' 이재환·'베테랑 수비수' 민상기 영입

광주FC가 특급 유망주와 노련한 베테랑으로 공수를 강화했다.

광주가 연례별 대표를 지낸 스트라이커 이재환(18)과 수원삼성, 포항스틸러스에서 활약한 중앙 수비수 민상기(33)를 영입했다.

191cm·82kg의 뛰어난 체격을 보유한 이재환은 문전에서 파괴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중앙 공격수로,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 플레이도 뛰어나다.

이재환은 또 장신임에도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드리블 실력을 갖추고, 왼발을 활용해 상대 타이밍을 뺏는 슈팅 능력도 뛰어난 '완성형 스트라이커'다.

이전 광성중-대전고 출신인 이재환은 중학교 3학년 당시 12골을 넣으면서 K리그 주니어 A조 전반기 득점왕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고등학교에서도 활약을 이어간 그는 2023년 AFC U-17 아시안컵 대표로 발탁돼 준우승에 기여했다.

2024시즌에는 전반기 전국 고등 축구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도 득점왕에 오르며 대전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이재환은 "광주에서 프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이고 공격포인트 10개 이상 기록하는 것이 목표다. 팬분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예 선수로 화력을 더한 광주는 베테랑 중앙 수비수 민상기를 영입해 수비도 강화했다.

민상기는 안정적인 대인 수비와 노련한 운영 능



광주FC가 특급 유망주 이재환(왼쪽)과 노련한 베테랑 민상기로 공수를 강화했다. <광주FC 제공>

력을 갖추고, 과감한 롱패스를 바탕으로 전방까지 움직일 수 있는 빌드업 능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민상기는 용인 태성중-수원 매탄고 출신으로 2010년 수원 유니폼을 입으면서 '매탄고 출신 1호 프로 선수'로 눈길을 끌었다.

2013년 본격적인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 잡은 그는 2022년에는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K리그 정상급 수비를 보여줬다.

2023년 부산아이파크, 2024년 포항에서 활약한 민상기는 프로 통산 230경기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민상기는 "광주라는 트렌디한 전술을 선도하는 구단에서 뛰 수 있게 돼 기쁘고 축구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대한 많은 경기에서 나와 팀에 도움이 되고, 팬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광주FC 합류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벨기에 프로축구 KRC 헹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현규가 12월 OH 퇴번과 치른 2024-2025 벨기에 주필리그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규 멀티골' 헹크, 벨기에컵 4강 진출

수적 열세에도 퇴번에 2-0 승

벨기에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공격수 오현규(23·헹크)가 페네티키코로 공식전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이 수적 열세를 딛고 승리하는 데 한몫했다.

헹크는 12월 OH 퇴번과 치른 2024-2025 벨기에 주필리그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헹크로서는 10명이 싸우며 거둔 승리라 더욱 값졌다.

헹크는 키오프 후술이 올린 지 6분 만에 수비수 마테 스페츠가 퇴장당해 경기 시간 대부분을 수적 열세 속에서 치러야 했다.

하지만 두 번의 페네티키코로 승부를 갈랐다.

전반을 0-0으로 마무리한 헹크는 후반 3분 아르네 스토이커스의 페네티키코 선제 결승골로 앞섰다.

이후 후반 24분 톨루 아코코다레를 빼고 벤치에

있던 오현규를 투입했다.

오현규는 후반 39분 페네티키코 기회에서 키커로 나서서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로써 지난 8일 신트트라위던 VV와의 벨기에 컵 8강 원정 경기에서 강점인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살려 두 골을 몰아넣고 헹크의 4-0 대승에 앞장섰던 오현규는 새해 들어 공식전 2경기 연속 골맛을 봤다.

정규리그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메헬렌과의 9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동점골과 역전골을 홀로 책임지며 2-1 역전승을 이끈 이후 106일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스코틀랜드 셀틱을 떠나 벨기에로 활동 무대를 옮긴 오현규는 정규리그에서는 아직 선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이날까지 19경기에 교체 투입돼 4골 1도움을 올렸다.

벨기에컵에서는 팀이 치른 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3골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일본 미우라, 58세에도 프로축구 현역...프로선수만 40년째

지난해 리그 최고령 경신

다음 달이면 만 58세가 되는 일본 축구 스타 미우라 가즈요시가 올해도 현역 선수로 뛴다. 프로 축구 선수로만 40년째다.

올해 일본프로축구 J1리그(1부)로 승격한 요코하마FC는 11일 일본프로축구(JFL) 소속 아틀레티코 스즈키에 지난해 입대한 미우라의 이적 기간을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양 구단의 입대 계약 연장 발표는 이번에도 미우

라의 등번호에서 착안해 11일 오전 11시 11분에 이뤄졌다.

15세이던 1982년 고교를 중퇴하고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떠나 일본 리그 출범(1993년) 전인 1986년 산투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미우라는 이번 연장 계약으로 40년째 프로 선수로 뛰게 됐다.

1967년 2월 26일생으로 다음 달이면 만 58세가 되는 미우라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A매치 89경기에 출전해 55골을 넣은 골잡이다.

프로팀에서는 브라질을 시작으로 일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호주에 이어 포르투갈을 합쳐 6개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요코하마로 2005년 이적했고, 지난해 6월 올리베이렌스(포르투갈 2부)에서의 임대 기간을 마치고 복귀한 뒤 바로 다시 일본 축구 4부리그 격인 JFL의 스즈키로 임대됐다. 이후 12경기에 출전해 득점은 올리지 못했으나 지난해 11월 24일 JFL 최종전에서 자신이 가진 리그 최고령 출전 기록을 57세 272일로 경신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